

■ 실버 보험 꼼꼼히 따져 보세요

‘묻지마 보험’ 믿다 낭패 볼 수도

노인들의 노후 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버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결과 지난 2005년 4천 700억원 규모의 실버보험 시장은 2006년 5천 769억원, 지난해 6천969억원에 달할 만큼 증가했다. 실버보험 유지계약 건수 역시 2005년 663건, 2006년 1천85건, 2007년 1천 26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장 성장세에 따른 실버보험 상품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상품 피해

최근 TV 광고 등을 보고 나이, 연령, 직업 등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보험’에 가입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서류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들이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보장과 내용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 달에 2만원 가량을 내면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치매, 화상, 골절 등 각종 질병입원비를 제공해준다는 광고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무심사 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질병 여부에 대한 고지나 별도의 심사 없이 가입되는 만큼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게 금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실버 보험상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는 게 보험계약의 상식이다.

1년 만기 약정인 소액 소멸성 보험의 경우 초기 가입 조건과 달리 매년 보험료가 30~50%씩 오를 수 있어 가입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보험은 만기 후에는 자동갱신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입했다라도 해약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 계약 종료일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무진단, 무고지, 무심사를 내세워 노인층을 겨냥하고 있는 보험들의 대부분이 가입 2년 내에는 제해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100% 지급되고, 질병 사망 시에는 낸 보험료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다. 가입기간 통원치료를 할 경우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보험 상품이 치매간병비, 상해 및 노인성 특정질병 등은 별도의 가입 및 추가보험료 납입이 필요한 선택특약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 살피는 게 중요

또 ‘상해된 질병이든 사망시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인 경우 상해사망은 사고 후 1년 내에 숨질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의 질병이나 암 수술비 제공약속의 경우에도 모든 질병이나 암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치매의 경우 특약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알츠하이머처럼 질병에 의한 치매에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실버보험의 경우 과장 광고가 있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 밖에 없다’며 ‘단순하게 보험사만의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충고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버 라운지

김재수



나의 당뇨병 극복기

당뇨병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발병률이 가장 높은 만성질환이다. 국내 역학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9~12%가 당뇨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필자도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었으나 당뇨병으로 인해 30여 년 동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전문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필자는 전문의사의 조언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당뇨병 약화를 막는데 첫째, 자기 체질에 알맞은 음식 조절이다.

혈당은 시시각각 변한다. 필자는 열량과 당질,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이 알맞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하루 세 끼나 후 적당량의 간식(과일 포함)과

을 갖고 노력해 왔다. 목욕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목욕탕에 가며 그 외에는 가정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매 식사 후마다 주로 걷기 운동을 30분~1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식사는 빠뜨리지 말고 적당량을 먹어야 하나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경에 먹는 것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각종 집회나 연회에 참석하면 자기 의사에 맞지 않더라도 의견대립을 피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비결이다. 과다하게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담배는 폐질환,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당뇨병환자는 금연을 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칫 밤잠하기 쉬운 당뇨병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혈당조절에 노력해야 많이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을 게

“체질에 맞는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

물은 반드시 마시고 있다. 식사도 한꺼번에 많은 양보다는 횟수를 늘려서 먹는 것이 좋다.

둘째, 자기 체질에 알맞은 적당한 운동 실천이다.

운동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식사를 하고 난 후 30분~1시간 후에 주로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혈당이 300mg/dl 이상이거나 250mg/dl 이상이면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단시간의 강한 운동은 혈당을 높여 눈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혈당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의 강도를 높일 때에는 운동 전과 후에 반드시 혈당 수치를 확인 해야 한다. 또 저혈당에 대비해서 운동 후 48시간까지는 특별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늦은 저녁 운동을 할 때는 운동 후 약간의 간식이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한 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단시간의 강한 운동은 혈당을 높여 눈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혈당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의 강도를 높일 때에는 운동 전과 후에 반드시 혈당 수치를 확인 해야 한다. 또 저혈당에 대비해서 운동 후 48시간까지는 특별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늦은 저녁 운동을 할 때는 운동 후 약간의 간식이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한 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예방에 도움이 된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실천이다. 주거환경은 항상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필자는 집안의 온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특히 청결문제에 관심

을 갖고 노력해 왔다. 목욕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목욕탕에 가며 그 외에는 가정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매 식사 후마다 주로 걷기 운동을 30분~1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식사는 빠뜨리지 말고 적당량을 먹어야 하나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경에 먹는 것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각종 집회나 연회에 참석하면 자기 의사에 맞지 않더라도 의견대립을 피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비결이다. 과다하게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담배는 폐질환,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당뇨병환자는 금연을 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칫 밤잠하기 쉬운 당뇨병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혈당조절에 노력해야 많이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을 게

을 갖고 노력해 왔다. 목욕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목욕탕에 가며 그 외에는 가정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매 식사 후마다 주로 걷기 운동을 30분~1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식사는 빠뜨리지 말고 적당량을 먹어야 하나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경에 먹는 것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실천이다. 주거환경은 항상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필자는 집안의 온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특히 청결문제에 관심

을 갖고 노력해 왔다. 목욕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목욕탕에 가며 그 외에는 가정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매 식사 후마다 주로 걷기 운동을 30분~1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식사는 빠뜨리지 말고 적당량을 먹어야 하나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경에 먹는 것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입시 본인 서명·과거 병력 알려줘야

주 보험·선택 특약 혜택 범위 꼭 확인

음감독원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본인 서명과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반드시 과거의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전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보험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

TV 광고는 보험 혜택을 강조하는 대신 보험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감추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전화로 보험계약을 할 경우 보험약관이 나중에 도착하기 때문에 약관상 불이익을 알고

난 뒤 해지 절차도 쉽지 않다.

보통 실버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의 일부 조건만 특화시킨 다음 명칭을 바꾸고 상해보험인지 질병보험 인지 가려낼 수 없도록 한 뒤 노인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해지 절차도 쉽지 않아

이런 보험의 경우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무진단, 무고지, 무심사를 내세워 노인층을 겨냥하고 있는 보험들의 대부분이 가입 2년 내에는 제해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100% 지급되고, 질병 사망 시에는 낸 보험료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는 게 보험계약의 상식이다. 1년 만기 약정인 소액 소멸성 보험의 경우 초기 가입 조건과 달리 매년 보험료가 30~50%씩 오를 수 있어 가입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보험은 만기 후에는 자동갱신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입했다라도 해약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 계약 종료일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무진단, 무고지, 무심사를 내세워 노인층을 겨냥하고 있는 보험들의 대부분이 가입 2년 내에는 제해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100% 지급되고, 질병 사망 시에는 낸 보험료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주 보험 및 선택특약의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금의 지급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 광고를 믿을 게 아니라, 보험사와 보험대상자의 계약인 ‘약관’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입원비 6만 원, 주요 질병 입원비 매일 10만원 제공’이란 보험광고가 있을 경우 입원비 6만원만 제공될 수 있다. 입원비 10만원은 별도특약에 가입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더 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부동산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에너지 비상 난방비 걱정! "히팅레일"로 해결!! 기름값의 1/4, 가장 경제적입니다. 일반전기 사용시설에 좋습니다. ★ 병원, 유치원, 요양원 ★ 기숙사, 고시원, 음식점 ★ 복지시설, 종교시설 ★ 모텔, 오피스텔 ★ 현장사무실, 일반상가. 가정용 전기는 전기요금 누진체제로 적용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서 지티 나 히팅레일을 꼭 검색해보세요. GT Touch Co., Ltd. 상담 전화: 062)523-1990, 063)223-1991.